

군산시민문화회관 변신하나

GRAND DIT FESTA... 3~7일 4박 5일간 프로젝트 진행 요기수업·스케이트보드 강습 등 공간 활용가능성 실험

군산시가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군산시민문화회관 옥상 등 야외공간에서 요가·스케이트보드 강습 등 참여형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 전시 등 시민과 관객들이 수동적 주체였던 기존 공간 활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실험해 보기 위한 것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운영·리모델링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탁해 시행중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한정된 기간이지만 공간 활용에 대한 폭넓은 실험을 위해 정적 활동인 요가수업에서부터 동적 활동인 스케이트보드 강습, 소규모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난 10월 공개 모집한 3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 GRAND DIT FESTA 포스터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임시 스케이트보드 파크와 야외 영화 스크린 등을 함께 만들어보는 DIT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그 파

정을 영상으로 제작 지역사회와 공간 운영자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향후 운영자 선정 시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간 중 마지막 날에는(7일 오후 2시)에는 스케이트보드 파파레 공연,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K-POP 학과 공연 등을 기획하여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한 오픈이벤트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100명 이내로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 특화된 거점시설로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시설조성 후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갖춘 다양한 민간 운영에 참여시키고 그 수익을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민간협력형(MPP)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시민들의 문화휴유공간으로써의 추억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기자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출산 지원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운영하는 전북 지역장애인보건요양센터(센터장 주민철)가 최근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제1산부인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1산부인과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북권역 여성 장애인의 건강과 임신, 출산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

익산시, 상반기 미신청자 대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

익산시는 2월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중 24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으나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소상공인으로 유흥·사행성 업소와 다단계업체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장사본,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만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민원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접수로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죽은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총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다.

/익산=장영원기자

이씨스 새만금공장 신규인력 88명 채용 나서

20일까지 지원서류 접수

이씨스 새만금공장이 직원 88명 채용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석기)는 지난달 28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이씨스 새만금공장 채용전환 접수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전장부품 및 자율주행차 무선인터넷 장치 전문제조기업인 이씨스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1만 9,834㎡ 부지에 297억 원을 투입해 3월 착공을 시작, 12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이씨스는 ETCS(하이패스), 블루투스 모듈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전장 통신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실증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직 75명, 자재 입고출고 관리 9명, 경비 2명, 미화 2명 등 총 88명으로,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 홍보와 구직자발굴,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석기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기에 이씨스가 군산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군산지역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군산 소재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사 지원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063-450-130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gnsanjh.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농업회의소, 인문학강좌 수강생 모집

익산시농업회의소(회장 김선태)는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총 7강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익산시북부청사 3층 다목적강당에서 농민을 위한 인문학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중이다.

강좌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익산시농업회의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농민을 위한 인문학강좌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먹거리와 농업을 주제로 하여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기획하였다.

6일 'GMO, 유전자조작 밥상을 치우리'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10일 '상생을 위한 우리의 먹거리', 12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정책 '푸드플랜', 17일 기후변화시대의 농업, 19일 하늘을 품은 한자, 주제로 풀다, 24일 '정약용의 삶으로 보는 실학이야기', 26일 '동양고전을 통해서 본 소문의 의미'로 진행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뿔 신동지구대, 지역 안전 순찰 호응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대장 송태석)에서는 지역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객 절도 등 범죄 예방과 코로나19 감염 방지위반 노력을 당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 순찰에 힘써 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권역별 요양시설, 복지시설 중심으로 시설 관계자와 1:1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시설 내 CCTV, 방범창 등 방범 시설 점검과 시설 내부 각종 절도 등에 대한 대응요령 설명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환자 관리에

마음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 예찰 활동에 힘쓰고 있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보호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범죄 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각종 위험 요소들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치안이나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성재 익산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치안 활동을 펼쳐 지역의 곳곳을 살피는 든든한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지역 소식통

온라인 군산짬뽕페스티벌

비대면으로 2주동안 온라인축제로 짬뽕페스티벌이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동명길 일원(잠미동)에 위치한 짬뽕특화거리에서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온라인 축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당초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해 개최 예정이었던 짬뽕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이 모이는 공연, 체험, 마켓 등 행사를 대신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치러진다. 비대면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고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짬뽕특화거리에는 흥등과 네온사인으로 거리를 밝히며 짬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포토존을 구성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기간동안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짬뽕 UCC 공모전 ▲100인의 짬뽕요리사 ▲군산짬뽕 챌린지 ▲짬뽕맛방의 달인 ▲거리 속 숨겨진 나의 한끼 ▲인생샷 인생짬뽕 ▲군산짬뽕거리 도장깨기 등 다채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군산=한경봉기자

7일부터 과학놀이터 운영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복귀금이 후원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과학을 즐기자! 핀란(fun fun)한 과학체험 놀이터를 7일 운영한다.

이번 과학체험 놀이터는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차 진행되며, 접수는 3일부터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ksuicncclass>)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준하여 철저하게 진행되고, 지역 내 초·중·고학생들에게 기초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체험 내용은 ▲푸드런터 ▲스핀에어쇼 ▲아름다운 변신 ▲만화경 ▲파일전지 ▲클레이 더전 ▲퍼즐 풀림 ▲손발전기 ▲스스로 서는 연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군산=한경봉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